

구약성경의 본문비평

김정훈(부산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본문비평의 개념과 목적

구약성경 본문은 오랜 구두 전승과 문헌화 과정을 전제한다.¹ 구약성경의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은 이 선행 단계 끝에 마무리되었을 최초 문헌을 지향한다. 달리 말하자면, 구약성경의 본문비평은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성경 필사본들에 담긴 본문 증거들(textual witnesses)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원본이 전해지지 않으며, 오랜 세월의 필사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 게다가 필사 과정에서 여러 필사본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이문 또는 이형, variant)가 생겨났고, 같은 구절이라도 전하는 본문 증거들(textual witnesses)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개 신학적 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것이지만,

1 구약성경 본문의 전승에 관해서는, 김정훈 지음,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94-100을 참조하라.

본문의 해석과 이해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문비평은 다양한 필사본에 보존된 본문 증거들을 비교 분석하여, 본문의 형태들을 분류한 뒤에 성경 본문의 역사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본문비평으로 이르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크게는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원-본문”(Urtext)을 지향하는 것과 현존하는 본문 증거들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는 일로 나뉜다.² 우리는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원-본문을 지향하는 것은 본문 증거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본문비평의 방법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본문비평이란 현존하는 본문 증거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문비평은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본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므로, 본문비평의 결과에는 그 모든 작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본문비평의 작업은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는 데서 끝이 아니라, 어떤 본문이든 이형들(variants)이 존재한다면, 그 이형들의 정체를 규명하고 본문의 이형들이 생긴 까닭까지 추적하여 가능한 본문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³

한편, 본문비평은 철저히 본문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곧 본문비평은 본문의 통일성을 검증하며 문헌의 형성 단계를 분석하는 문헌 비평(Literarkritik)과

2 본문비평의 목적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은,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17-19;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김정훈 외 역,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휘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204-208을 참조하라.

3 이런 견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61-169;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223-225을 참조하라. 본문 증거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본문 역사 재구성과 본문비평에 관점을 둔 것으로는, R. W. Klein,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The Septuagint after Qumra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도 참조하라.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⁴ 본문비평은 본문의 형성과 전승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형들이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 규명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가장 초기의 재구성 가능한 본문을 확정하고자 한다. 본문비평은 문헌이 편집·형성된 과정을 다루는 문헌 비평과 달리, 현재 남아 있는 필사본 증거들에 근거하여 본문의 문자적 형태와 전승 역사를 다루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본문비평은 철저히 필사본들의 본문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본문비평의 연구는 구약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경 번역과 주석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비평에서 다루는 여러 개념과 일반적인 원칙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본문 증거의 종류, 본문 이형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원인, 본문비평의 방법론과 원칙, 그리고 주요 본문 사례 등이 포함된다.

2. 본문비평을 위한 구약성경의 본문 증거들

구약성경 본문비평에서 활용되는 본문 증거(textual witness)란 구약성경 본문을 담고 있는 모든 필사본(manuscripts)과 고대 역본(ancient versions)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경우,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일부 아람어)로 된 필사본뿐 아니라, 고대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사본들도 중요 증거로 다루어진다.

4 본문비평과 문헌비평의 차이에 대해서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83-326; 피셔, 『구약성서 본문』, 201-204;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296 등을 참조하라. 요컨대, 본문의 성장 과정 종료 이후에 생긴 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문헌비평의 영역이다. 그리고 본문의 성장 과정에서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는 본문의 문제와 필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본문비평의 영역이며, 그 밖의 문제는 문헌비평의 영역이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성경 본문비평에 핵심적인 네 가지 증거,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쿰란 성경 본문,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기타 고대 역본들을 소개한다. 각각의 증거가 지닌 특징과 본문비평에서 지니는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이후의 비평 작업의 토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구약성경 본문 전승의 발전

문헌 형태 구약성경의 형성 단계는 필사의 시대로 이어졌다. 구약성경 본문의 필사에는 파피루스나 가죽이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⁵ 특히 쿰란 동굴과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무렵의 히브리어 필사본들은 대개 가죽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이었다.

초기 필사의 형태는 여러 낱장을 이어 붙여서 말아놓은 형태인 두루마리(Schriftrolle, scroll)였다. 두루마리가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였지만, 두루마리 형태 자체에서 오는 사용의 불편함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던 사이 기원후 2세기 무렵에는 파피루스의 경우 낱장을 이어 붙이지 않고, 겹쳐서 반으로 접은 채로 앞에서부터 필사해 나가는 초기의 책 형태가 등장하였다.⁶ 그와 비슷한 시기에 페르가몬(Pergamon)에서는 동

5 현존하는 성경 본문 파피루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미라를 감쌌던 것으로 칠십인역 본문을 전하는 단편인데, 신명기의 일부분 본문이 확인되었다(Papyrus Rylands Greek 458, 기원전 2세기 중반). 이에 대한 설명과 도판은, 피셔, 『구약성서 본문』, 312-313을 보라. 한편, 쿰란 제4 동굴에서 나온 삼상 23:9-13을 담은 단편(4Q52)은 성경 본문을 담은 가죽 두루마리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 설명과 도판은, 피셔, 『구약성서 본문』, 274-275을 보라.

6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필사본으로는 칠십인역 에스겔, 다니엘(수산나-다니엘-벨과 뱀), 에스터의 본문을 담고 있는 P967(Dublin, CBL, P. Ch. Beatty IX+X)로 기원후 2/3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필사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파피루스 목록은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218-221을 참조하라.

물 가죽을 삶아 마름질한 뒤에, 날장을 겹쳐서 제본한 책 형태의 필사본 기술이 등장했으니, 이를 양피지(Pergament; parchment)라고 일컫는다.⁷ 양피지의 등장으로 필사본의 사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양피지 제작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 필사본의 생산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기원후 8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술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 성경 필사본을 더욱 손쉽게 제작하여 확산시킬 수 있었다.⁸ 그리하여 13세기 이후부터는 유럽에 제지술이 널리 퍼져서 종이 필사본이 값비싼 양피지 필사본을 대신하였다.

오래도록 이어온 성경 본문의 필사 전통은 15세기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16세기부터는 인쇄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판세를 맞이하며,⁹ 마침내 단순한 필사에서 여러 필사본의 본문 형태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주 본문과 본문비평 각주를 제공하는 비평편집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비평편집본은 크게 신뢰할 만한 한 필사본의 본문을 주본문으로 두고 나머지 정보를 비평 각주로 제공하는 ‘고문서본’(diplomatic edition)과 편집자의 본문비평적 판단에 따라 재구성한 본문을 주본문으로 두고 나머지를 비평 각주로 돌리는 ‘절충본’(eclectic edition)으로 구분

7 양피지(parchment; pergament)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11-213과 양피지 필사본 목록으로는 223-226을 참조하라.

8 “서양에 중국의 제지술이 전파된 결정적 계기는 기원후 751년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 이끌던 당나라 군대가 탈라스(Talas) 전투에서 사라센 제국에게 패한 사건이었다. 이 전투에서 사라센의 포로가 된 당나라 사람들이 제지술을 전수함으로써 비로소 서양 근대 제지술 발전의 길이 열렸다. 종이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http://en.wikipedia.org/wiki/Paper>를 참조하라.”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97, 주 2).

9 히브리어 본문의 초기 인쇄본은 16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 나온 이른바 “랍비 성경”이다. 먼저 1516-1517년에 봄베르크(Daniel Bomberg, ?-1549?)가 이른바 “랍비 성경”(Rabbinic Bible=RB)이라는 이름으로 마소라 본문을 출간했다. 1524-1525년에는 야콥 벤 하임(Jacob ben Chajim Ibn Adoniah, 1470?-1538?)이 랍비 성경을 다시 펴냈는데, 이를 두고 “제2 랍비 성경”(RB2)이라고 부른다.

된다.¹⁰

2)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마소라 본문은 현재 유대교와 개신교 전통에서 통용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으로서, 약 6세기경부터 10세기경까지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Masoretas)이 전승하고 보존한 본문이다. “마소라”(מָסוֹרָה)라는 명칭은 “에워싸다”는 뜻의 동사 “수르”(סָוַר)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기원후 2세기에 랍비 아키바(Akiba ben Joseph, 기원후 40?-135?)는 “마소라는 토라를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다”(Piqre Abot 3.14)라는 유명한 말로 이 당시의 전통을 잘 요약해 주었다.¹¹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 자음 본문에 모음 기호와 강세 부호 등을 추가하여, 본문을 보다 정확히 읽고 전수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들은 본문의 철자나 단어 수를 세는 등 극도로 엄격한 방법으로 본문을 보존했고, 난해하거나 의심스러운 구절에 대해서는 여백에 주석을 다는 등 부가적인 마소라 주석을 만들었다.¹²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소라 본문은 중세 필사본들 사이에서 비교적 통일된 형태로 정착되었고, 유대교에서는 이를 공인본(textus receptus)으로 삼아왔다.¹³

10 이 두 용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김정훈, 『구약 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121-122; 피셔, 『구약성서 본문』, 58-60을 참조하라.

11 S. 크로이처 등 지음/김정훈 옮김,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6-67.

12 이런 난외주는 케티브(Ketib)/케레(Qere), 세비린(Sebirin), 티쿠네 소페림(Tiqqune Sopherim), 이투레 소페림(Itture Sopherim) 등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Tov, Textual Criticism, 47-61; 피셔, 『구약성서 본문』, 26-30;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160-165 등을 참조하라. 전반적인 마소라 전통에 대해서는, I. Yeivin,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Masoretic Studies 5; Atlanta: Scholars Press, 1980); 페이지 H. 켈리 외 지음/강설열 옮김,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등을 참조하라.

13 그 전통이 남아 있는 인쇄본 형태가 이른바 ‘랍비 성경’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9)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마소라 필사본은 기원후 1008년에 필사가 마무리된 레닌그라드 사본(Codex Leningradensis; B 19A)으로, 현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¹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Biblia Hebraica Quinta; BHQ)¹⁵ 등 학계 표준 히브리어 ‘고문서본’ 성경의 주본문으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9세기 무렵의 카이로 사본(Codex Cairensis), 10세기 무렵의 알레포 사본(Codex Aleppensis) 등 여러 중요한 마소라 필사본들이 전해진다.¹⁶ 이들 사이에는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용이나 특징이 거의 같아서 하나의 전통을 이룬다.

마소라 본문은 구약 본문 연구의 기준점으로서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승되었고, 대다수의 후대 역본이 이 전통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다만, 마소라 본문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으며, 본문비평 과정에서는 마소라 본문과 다른 증거들을 비교해서 때때로 마소라 본문이 후대에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한다.

3) 쿨란 성경 본문(Qumran Biblical Texts)

1947년 사해 근처의 와디 쿨란(Khirbet Qumran) 지역의 동굴에서 처음 발견된 일련의 고대 필사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

를 보라.

- 14 K. Elliger, W. Rudolph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7-1977; ⁵1997) =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 15 A. Schenker et al.(eds.), *Biblia Hebraica Quinta editione s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이 비평편집본은 현재 다음과 같이 낱권으로 출간되었다: *Genesis* (2016); *Leviticus* (2020); *Deuteronomy* (2007); *Judges* (2011); *Ezekiel* (2025); *Twelve Prophets* (2010); *Job* (2024); *Proverbs* (2008); *Megilloth* (2004); *Ezra and Nehemiah* (2006).
- 16 마소라 전통의 필사본들에 대한 설명과 도판은 피셔, 『구약성서 본문』, 296-305을 보라.

이에 필사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 필사본들을 포함한다. 쿵란 공동체가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이 두루마리들에는 성경 본문과 더불어 공동체 규율, 주석 등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¹⁷ 구약성경 본문으로는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견되어 따로 편집본이 나오기도 했다.¹⁸

이들 쿵란 성경 본문은 마소라 전통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선 시기의 히브리어 본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구약성경 본문비평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쿵란 성경 본문들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필사본은 후대의 마소라 본문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필사본들은 현존하는 마소라 본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어떤 것은 사마리아 오경이나 칠십인역이 전하는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본문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¹⁹

예를 들어, 쿵란에서 발견된 예레미야서 히브리어 단편들(4QJer^{b, d})은, 현존하는 마소라 본문 예레미야서보다 내용이 짧고 순서가 다른 칠십인역 예레미야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레미야서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히브리어 전승(긴 판본과 짧은 판본)이 존재했음을 보여주

17 와디 쿵란 근처와 유다 광야에서 발견된 모든 필사본의 목록은, E. Tov (ed.), *The Text from the Juda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Series* (DJJD XXXIX; Oxford: Clarendon, 2002)을 보라. 이 책에서는 이른바 사해 사본을 다양하게 분류한 목록들을 제공해 준다. 더불어 사해 사본의 모든 편집본은 <https://orion.huji.ac.il/resources/djd.shtml>에서 일람할 수 있다.

18 쿵란 성경 본문만을 따로 모은 편집본으로는 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S.VT 134; Leiden/Boston: Brill,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19 쿵란 성경 본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07-110을 참조하라. 여기서 토브는 쿵란 성경 본문의 형태를 마소라 본문과 유사한 형태, 사마리아 오경의 이전 형태,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대본과 가까운 형태, 독자적인 형태 등으로 나눈다. 좀 더 상세한 연구로는, E. Tov, *Scribal Practices and Approaches Reflected in the Texts Found in the Judean Desert* (STDJ 54; Leiden/Boston: Brill, 2004)을 보라.

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²⁰ 대체로 콤란의 성경 필사본 가운데 약 44-48%는 마소라 본문 계열, 2-7% 정도는 칠십인역과 일치하는 계열, 나머지는 혼합 양상 또는 독자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다.²¹ 이는 2차 성전기 동안 성경 본문에 복수의 판본 계열들이 공존했음을 시사하며, 구약성경 본문비평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본문의 유동성(flexibility)과 다양성(multiplicity), 그리고 그 변천을 연구한다.²²

콤란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은, 구약 본문의 전승 정확도이다. 콤란 성경 본문과 1,000년 후에 필사된 마소라 본문을 비교했을 때, 내용이 거의 같은 구절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그 긴 시간 동안 히브리어 본문이 대단히 충실하게 전해졌음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일부 차이 나는 구절들은 후대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며, 본문비평 작업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4) 칠십인역(Septuagint)

칠십인역은 헬레니즘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고대 역본,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어로 저작된 외경을 아우르는 말인데, 신약 시대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도 널리 사용된 중요한 성경 본문 증거이다. 이 번역은 약 70명의 유대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20 예레미야 콤란 성경 본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86-294을 보라. 칠십인역과의 관계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08-112을 보라.

21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08.

22 이 당시 구약성경 본문의 유동성과 다양성 현상과 본문의 역사에 대한 연구로는, Jong-Hoon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s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을 참조하라.

“칠십인역”(Septuagint; LXX)이라 불리는데,²³ 실제로는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토라 번역이 시작되어 기원전 2-1세기까지 순차적으로 나머지 구약 책들의 그리스어 번역이 완성된 것으로 여긴다.²⁴

칠십인역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초대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받을 만큼 권위 있었고, 무엇보다 마소라 본문보다 수백 년 앞선 히브리어 대본(Vorlage)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비평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마소라 본문 계열의 히브리어 필사본이 비교적 후기의 것밖에 없던 19세기 이전에는, 칠십인역이 가장 오래된 성경 증거로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에 활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칠십인역에 마소라 본문과 다른 구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히브리어 대본(Vorlage)의 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그 차이가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번역자가 히브리어 원문을 오역했거나 의역했을 가능성, 혹은 원문이 난해해서 그리스어로 평이하게 바꾸었을 가능성을 살핀 뒤에, 그런 번역상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라면 비로소 히브리어 대본의 이형을 의심할

23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역본의 기원을 전하는 중요한 전승으로는 기원전 2세기 중반 무렵 저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이다. 이 편지의 본문과 우리말 번역 및 해제는, 송혜경, 『구약 외경1』(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22), 522-699을 참조하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레아자르에게 “...훌륭한 삶을 산 원로로서 당신네 율법에 숙달되고 번역 능력을 갖춘 이들을, 각 지파마다 여섯씩 뽑아 주시오...” (§ 39)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번역자는 72명이 파송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익명의 초대 교부에서부터 “칠십 인에 의한 (성경)”(ή ἁγία γραφή κατὰ τοὺς ἑβδομήκοντ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로 70과 연관되어 오늘에 이른다. 우리말에서는 번역임을 강조하여 “칠십인역”이라 일컫기도 하고, 성경임을 강조하여 “칠십인경”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둘 다 정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정확히 일컫자면 “칠십인역 그리스어 구약성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3-24을 참조하라.

24 칠십인역의 번역과 개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19-188; 피셔, 『구약성서 본문』, 125-146 등을 참조하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구절에서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과 차이를 보인다면, 우선 칠십인역 필사본들 자체의 해당 구절이 일관되는지, 번역자의 문체나 번역 기법이 그런 표현을 선호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도 해명이 어려운 차이일 경우, 쿠틀란 성경 본문이나 다른 역본(타르굼, 페쉬타 등)에서 같은 이형이 나타나는지 찾아본다. 만약 칠십인역의 특이한 구절을 다른 증거들 (특히 히브리어 사본)도 지지한다면, 그때는 해당 구절의 히브리어 대본 자체가 마소라 본문과 달랐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칠십인역은 구약성경 본문비평에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의 대안 전승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칠십인역은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마소라 본문과 구분되는 오래된 히브리어 본문 형태를 증언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쿠틀란 성경 본문의 발견으로 그 이형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대 히브리어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예: 예레미야서의 단락 배열 및 분량).

칠십인역 자체의 본문 증거는 수많은 그리스어 필사본에 담겨 전한다.²⁵ 중요한 칠십인역 대문자 필사본으로는 4세기 무렵의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 5세기 무렵의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등이 있으며,²⁶ 이 외에도 파피루스 단편들과 후대의 소문자 필사본들이 많다. 오늘날에는 알프레드 랄프스(A. Rahlfs)가 몇몇 대문자 필사본들을 중심으로 편집한 칠십인역 소비평판

25 칠십인역 본문을 담은 필사본들의 목록과 설명은, A. Rahlfs,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D. Fraenkel,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Septuaginta suppl. Bd. I,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등을 참조하라.

26 칠십인역의 주된 필사본들에 대한 설명은 피셔, 『구약성서 본문』, 146-150을 참조하라.

집본(LXX-Ra),²⁷ 아직 미완성으로 날권으로 출간되고 있는 괴팅엔 칠십인역 대비평편집본(LXX-Gö)²⁸ 등의 ‘절충본’(eclectic edition)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칠십인역 본문을 연구한다.

5) 사마리아 오경 (Samaritan Pentateuch)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 공동체가 전승해 온 토라(모세오경)의 히브리어 본문을 가리킨다. 사마리아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분파된 자체의 종교 전통을 형성했는데, 그 경전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책만을 인정하였다. 사마리아 오경은 문자 언어상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 서체가 반영된 사마리아 문자로 필사되었다. 그리고 마소라 전통의 본문과 6,000여 곳에서 차이를 보인다.²⁹ 대부분의 차이는 철자법이나 문법상의 사소한 차이지만, 몇몇 경우 의미론적

-
- 27 랄프스의 소비평편집본은 2006년에 한하르트가 개정해서 출간하였다. A. Rahlfs/R. Hanhart (eds.),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Duo volumina in uno, Editio altera* (Stuttgart: 2006).
- 28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I Genesis* (Wevers, 1974); *II,1 Exodus* (Wevers/Quast, 1991); *II,2 Leviticus* (Wevers/Quast, 1986); *III,1 Numeri* (Wevers/Quast, 2020); *III,2 Deuteronomium* (Wevers/Quast, 2006); *IV,3 Ruth* (Quast, 2009); *VII,2 Paralipomenon II* (Hanhart, 2014); *VIII,1 Esdrae liber I* (Hanhart, 1991); *VIII,2 Esdrae liber II* (Hanhart, 2017); *VIII,3 Esther* (Hanhart, 1983); *VIII,4 Iudith* (Hanhart, 1979); *VIII,5 Tobit* (Hanhart, 1983); *IX,1 Maccabaeorum liber I* (Kappler, 1990); *IX,2 Maccabaeorum liber II* (Hanhart, 2008); *IX,3 Maccabaeorum liber III* (Hanhart, 1980); *X Psalmi cum Odis* (Rahlfs, 1979); *XI,2 Ecclesiastes* (Gentry, 2019); *XI,4 Iob* (Ziegler, 1982); *XII,1 Sapientia Salomonis* (Ziegler, 2017); *XII,2 Sapientia Jesu Filii Sirach* (Ziegler, 2016); *XII,3 Psalmi Salomonis* (Albrecht, 2018); *XIII Duodecim Prophetiae* (Ziegler, 1984); *XIV Isaias* (Ziegler, 1983); *XV I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Ieremiae* (Ziegler, 2013); *XVI,1 Ezechiel* (Ziegler/Fraenkel, 2015); *XVI,2 Susanna, Daniel, Bel et Drachon* (Ziegler/Fraenkel, 1999).
- 29 사마리아 오경의 가장 대표적인 편집본으로는, A. von Gall,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aritaner, vols. I-V* (Giessen: Töpelmann, 1914-1918; repr. Berlin 1966)이 있다. 사마리아 오경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74-90을 참조하라.

으로 중대한 차이도 있다.³⁰

사마리아 오경은 기원전 2세기 무렵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쿰란 성경 본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 오경과 매우 비슷한 특징(평행 본문의 조화, 신명기계 삽입 등)의 이른바 “전-사마리아” 본문(Pre-Samaritan Text)도 발견되었다.³¹ 이는 사마리아인들만의 독자적 수정이라기보다는, 유대교 내에서도 한때 존재했던 토라의 개정 전승일 가능성을 내보인다. 어쨌든 이후 유대 주류 전통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하였다. 그 결과 사마리아 오경은 오랫동안 서방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17세기 이후에야 서구에 소개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오경은 흥미로운 자료이다. 마소라 본문과 자주 일치하지만 때로는 칠십인역과 공동으로 마소라 본문과 다른 읽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쪽과도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대체로 신학적 동기가 뚜렷한 변화(예: 예배 장소를 그리심으로 바꿈)는 사마리아 공동체의 의도적 수정으로 보지만, 숫자나 이름처럼 명확한 동기 없이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변이는 오히려 마소라 본문이 후대에 수정된 흔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은 비판적으로 활용할 경우, 토라의 본문 역사와 이형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만, 그 신학적 편향 때문에 모든 구절을

30 가장 유명한 보기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본문에 사마리아 오경 고유의 열한째 계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심산을 택하셨으니, 그곳에 제단을 세워 예배하라는 내용으로서 사마리아인의 신앙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이 계명 조항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산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본문을 수정한 대표적 사례로 이해된다. 또 다른 보기로 신명기 27장 4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하는 구절을, 사마리아 오경은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바꾼다. 이처럼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 변화들은 주로 사마리아 공동체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도록 의도된 수정들로 평가된다.

31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90-93을 참조하라.

동등한 가치로 취급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교차 검증하여 사용한다.

6) 기타 고대 역본들: 아람어 타르굼,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어 불가타 등

구약 본문비평에는 위의 네 가지 주요 증거 외에도 여러 고대 번역본이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람어 타르굼(Targum)과 시리아어 페쉬타(Peshitta),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Vulgate)를 들 수 있다.

타르굼은 고대 유대인들이 모국어인 아람어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번역/주석으로서, 다양한 전승들이 있다. 타르굼은 비교적 의역과 주석적 첨가가 많은 편이라 원문 반영보다는 당대의 해석 전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히브리어 본문의 이형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타르굼 요나단이나 예루살렘 타르굼 등은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한 본문을 따르는 흔적을 보이기도 한다.³²

페쉬타는 초대 교회 시기에 시리아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구약 페쉬타는 대략 기원후 2세기 무렵 유대인들이 번역했을 것으로 여긴다.³³ 페쉬타의 구약은 상당 부분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지만, 간혹 칠십인역과 공통되게 마소라 본문과 다른 독법을 전하기도 한다.

불가타(Vulgata)는 4세기 말 교부 히에로니무스(Hieronymus)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라틴어로 새로 번역한 성경을 일컫는다. 히에로니

32 타르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서로는, D. R. Beattie/M. McNamara/M. J. McNamara (eds.), *Aramaic Bible: Targums in Their Historical Contex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를 참조하라.

33 페쉬타에 대한 소개로는, S. P. Brock, *The Bible in the Syriac Tradition* (Piscataway: Gorgias Press, 2021)을 참조하라.

무스는 당시 사용되던 칠십인역 대신 히브리어 본문을 참조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불가타 구약은 전반적으로 마소라 본문 계열을 반영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칠십인역의 영향을 받은 구절도 있고, 중세 사본 전승에서 약간의 수정이 누적된 면도 있으므로, 본문비평에서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³⁴

이 밖에도 그리스어 아퀼라 역, 심마쿠스 역, 테오도티온 역(마소라 본문 기반의 2세기 부럽의 그리스어 역본들), 일명 “세 역본(the Three)”이나 칠십인역의 고대 라틴어 역본인 “베투스 라티나”(Vetus Latina),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아랍어 등의 고대 번역들도 본문 비교에 활용된다. 다만 이런 역본들은 번역상의 해석 차이인지 실제 본문의 차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주로 다른 주요 증거들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곧 하나의 이형에 대해 주된 본문 증거들(MT, Q, LXX, SP)이 갈릴 때, 어떤 고대 역본의 증언이 그 가운데 한 쪽을 지지하면, 그 본문 증거의 무게를 더 실어주는 식이다.

요약하면, 구약 본문비평은 히브리어로 된 직접 전승(MT, Q, SP)과 고대 번역을 통한 간접 전승(LXX 및 기타 역본)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본문 증거마다 작성 시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불가타의 본문비평적 가치에 대한 평가로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52-153을 보라.

3. 본문비평의 일반적인 전제와 원칙

1) 본문 이형이 생기는 까닭³⁵

구약성경의 필사본들을 대조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형들이 있는데, 본문비평을 할 때는 개별 용례에서 보이는 차이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것이 필사오류(scribal error)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진 수정의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1) 비의도적 오류

필사자의 본문 필사는 사람의 손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단순한 실수로 생기는 필사오류는 피하기 어렵다. 사실 숙련된 필사자라 해도 장시간 필사 작업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시각적 혼동(erratio oculi)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비의도적 오류의 대표적인 현상은 크게 본문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바뀌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본문이 짧아지는 경우

i. 잇달아 나오는 두 자음 가운데 필사자의 실수로 하나를 빠뜨리는 “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의 경우가 있다. 사무엘하 22장 15절에서 케티브(Ketib)는 “וַיִּשְׁלַח חֲצִיָּים וַיְפִיצֵם בְּרֶגֶל וַיְהִי־מָם” (바이설라흐

35 여기서 드는 분류 기준과 보기들은,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191-204에서 언급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비교. P. Kyle McCarter, P.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26-61;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19-262; 피셔, 『구약성서 본문』, 193-225; H. Utzschneider/S. A. Nitsche, *Arbeitsbuch Literarwissenschaftliche Bibelauslegung. Eine Methodenlehre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Gütersloher Verlagshaus, 2014), 47-52 등.

히치임 바여피츨 바라크 바여후뎀/그분[여호와]께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셨고, 번개로, 그분이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로 쓰는데, 이 본문의 케레(Qere)는 “וַיִּשְׁלַח הַצִּיָּים וַיִּפְּצוּם בְּרֶגֶל יְהוָה” (바이של라흐 히치임 하여피츨 바라크 바야흠/그분[여호와]께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셨고, 번개로, 그분이 [-] 혼란케 하셨다)를 제안한다. 케티브에는 전반절과 같은 구조로 맨 마지막 낱말에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접미어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첩된 아인 중복 동사의 마지막 자음과 같아졌다. 케레에서는 바로 앞 자음과 같은 마지막 인칭 대명접미어 “ם” (뎀)이 없다. 한편, 칠십인역(*καὶ ἐξέστρεψεν αὐτούς*)은 케티브를 지지한다. 따라서 케티브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고대 본문 전통을 반영하며, 오히려 케레 전통에 전승된 본문이 두 번 이어진 자음 가운데 하나를 실수로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³⁶

또한, 필사자는 같은 낱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표현을 빠뜨리는 때도 있다.

ii. 같은 낱말로 시작하는 표현을 빠뜨리는 것을 “유사문두탈락”(類似文頭脫落; *homoioarcton*)이라고 한다. 가령, 창세기 31장 18절에서 마소라 본문은 “אֲשֶׁר רָכַשׁ מִקְנֵה קַנְיָנוּ אֲשֶׁר רָכַשׁ בְּפָדֵן אָרָם” (아쉐르 라카쉬 미크네 킨느야노 아쉐르 카라쉬 브파단 아람/그의 소유가 된 가축으로 모은 것들,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칠십인역은 여기서 첫 관계절의 네 낱말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다((-) ἢν περιεσεν ἐν τῇ Μεσοποταμίᾳ/헨 페리에포이에센 엔 테 메소포타미아). 이는 낱말 수와 더불어 관계사로 시작하는 첫 표현이 탈락한 보기로 여길 수 있다.

36 케티브/케레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R. Gordis,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²)를 참조하라.

iii) 같은 낱말로 끝나는 표현을 빠뜨리는 것을 “유사문미탈락”(類似文尾脫落: homoioteleuton)이라고 한다. 레위기 1장 8절의 마소라 본문을 보면, “עַל-הָעֵצִים אֲשֶׁר עַל-הָאֵשׁ אֲשֶׁר עַל-הַמִּזְבֵּחַ”(알-하에침 아셰르 알 하에쉬 아셰르 알-하미즈베아흐/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타르굼은 이 구절에서 “עַל-הָאֵשׁ אֲשֶׁר”(알-하에쉬 아셰르)에 해당하는 번역이 없다. 이는 관계사로 끝나는 둘째 표현이 탈락한 보기로 여길 수 있다.

② 본문이 길어지는 경우

i) 필사자는 더러 한 자음이나 낱말을 잘못해서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두 번 필사하는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의 경우가 있다. 이사야 31장 6절은 “שׁוּבוּ לֵאשֶׁר הָעֲמִיקוּ סָרָה בְּנֵי יִשְׂרָאֵל”(슈부 라아셰르 헤으미쿠 사라 브네 이스라엘/이스라엘아, 네가 심히 거역하던 이에게로 돌아오라)인데, 콤란 이사야서 필사본(1QIsa^a)은 “לאשר”(라아셰르)를 두 번 필사하였다. 콤란 성경 본문의 이 중복은 필사자의 부주의로 전치사와 관계사의 조합이 중복하여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ii) 때때로 필사자는 인접해 있거나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요소를 은연중에 합쳐서 필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이문융합”(異文融合; lectio duplex)이라고 일컫는다. 가령, 히스기야 임금의 통치를 전하는 열왕기와 이사야서의 평행 본문 가운데서, 열왕기하 19장 9절은 “מִלְאָכִים וַיִּשָּׁב וַיִּשְׁלַח”(바야쇼브 바이של라흐 말르아킴/그리고 그가 다시 사자들을 보냈다)로 전하고, 이사야서 37장 9절은 “וַיִּשְׁמַע וַיִּשְׁלַח מִלְאָכִים”(바이쉬마 바이של라흐 말르아킴/그리고 그가 듣고 사자들을 보냈다)로 전한다. 그런데 콤란 이사야서 필사본(1QIsa^a)은 두 본문이 합쳐진 “וַיִּשְׁב וַיִּשְׁלַח מִלְאָכִים וַיִּשְׁמַע”(바이쉬마 바야쇼브 바이של라흐 말르아킴/그리고 그가 듣고 다시 사자들을

보냈다)을 본문으로 전한다. 이는 필사자가 은연중에 두 전승을 합친 꼴로 여길 수 있다.³⁷

③ 본문이 바뀌는 경우

필사자가 본문의 길이와는 별개로 본문을 달리 필사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슷한 자음을 잘못 보거나, 발음이 비슷한 자음을 잘못 쓰거나, 자음의 위치를 뒤바꾸는 등이다.

i) 모양이 비슷한 자음들(graphic similarity) 사이에서 일어나는 필사 오류는 구약성경 필사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³⁸ 정방형 서체에서 자주 혼동되는 자음들은 \aleph/η , \beth/δ , \daleth/ζ , ε/ι , ζ/δ , η/ϵ , ι/ϵ 등이다.³⁹

ii) 일부 필사는 필사자 혼자 소리 내어 읽거나, 옆에서 불러주는 글을 받아쓰는 방식으로 했을 수 있다. 이때 발음이 비슷한 낱말들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한 것들이 있고, 특히 듣는 대로 받아적은 때는 잘못 들은 대로 적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이런 필사 오류는 후음(guttural; $\aleph/\eta/\zeta$)이나 순음(labial; \beth/δ)에서 자주 일어난다. 가령,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인명 “ $\aleph\eta\zeta$ ” (아도람)을 평행 본문인 역대하 10장 18절에서는 “ $\aleph\eta\zeta$ ” (하도

37 이런 판단은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26을 보라.

38 케티브/케레 전통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을 다룬 연구로는,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을 보라.

39 정방형 서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필사오류의 보기들은,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41-49;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28-231;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196-197을 보라. 물론 고대 히브리어 서체 가운데 비슷한 자음 사이의 혼동에서 비롯한 보기들도 있다. 이런 보기들은,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28을 참조하라.

람)으로 쓴다. 이는 분명 비슷한 후음(א/ה) 발음 사이의 혼동이다. 또한, 창세기 31장 49절에서 마소라 본문은 “וְהַמְצִיבָהּ” (브하미츠프/그리고 미스바(미츠프))로 쓰는 데 비해, 사마리아 오경은 “וְהַמְצִיבָהּ” (브하마체바/그리고 기둥(마체바))으로 쓴다. 이 경우는 비슷한 발음이 나는 순음(ב/ב) 사이의 혼동으로 뜻이 달라진 보기로 보인다.

iii) 필사자의 피로도느 잇단 자음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음위전환”(音位轉換; metathesis)의 필사오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러 음위전환은 본문의 뜻이 달라지게 하기도 한다. 열왕기상 7장 45절의 케티브는 “וְאֵת כָּל-הַכִּלִּים הָאֵלֶּה” (브에트 콜-하켈림 하오헬/그리고 모든 [회]막의 그릇들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의 기물임을 분명히 한다. 반면에 케레는 두 자음의 순서가 바뀐 “וְאֵת כָּל-הַכִּלִּים הָאֵלֶּה” (브에트 콜-하켈림 하엘레/인 모든 그릇)라고 제안해서 바로 앞서 언급한 것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칠십인역에는 문제의 표현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어서([-] [7:35])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어지는 관계절에 있는 “בֵּית יְהוָה” (베트-야훼/여호와의 집)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그런가 하면 어떤 음위전환은 고대 본문 전승의 한 축을 이루기도 했다. 사무엘하 24장 16절과 18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터로 땅을 산 사람의 이름이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는 “אֹרְנָה” (오르나)로 쓴다. 반면에 이 두 구절의 케레와 20, 22, 23절에서는 인명이 “אֹרְנָה” (아라브나/아라우나)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16절과 18절의 케티브는 음위전환의 필사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한결같이 이 인명을 “Opva” (오르나)로 음역해서 케티브를 지지한다. 더구나 현존하는 20절의 쿵란 성경 본문(ארנה; 4QSam^a f164_165:7)도 모

40 참조. M. Noth, *Könige I, 1-16* (BKAT IX1;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³2003), 145.

음 문자(mater lectionis)가 없는 불완전 서법(scriptio defectiva)을 내보이지만, 케티브를 지지한다. 따라서, 두 본문이 어느 때 음위전환을 겪은 뒤에, 콤란 성경 본문과 칠십인역의 시대에는 두 본문 형태가 유동적으로 공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iv) 더러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띄어읽기를 달리한 이형들도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띄어쓰기는 콤란 필사본에서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아마도 특정 자음을 앞 낱말에 붙이거나, 뒷 낱말에 붙이는 두 경우 모두 뜻이 통하는 데서 비롯한 이형일 것이다. 가령, 신명기 26장 5절의 소신조 본문에서 마소라 본문은 “אָבִי אֲבִיךָ אֲרָמִי” (아라미 오베드 아비/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로 쓴다.⁴¹ 반면에 칠십인역은 “Συρίαν ἀπέβαλεν ὁ πατήρ μου” (쉬리안 아프에발렌 호 파테르 무/내 아버지는 시리아를 떠났습니다)로 옮기는데, 이는 “אָבִי אֲבִיךָ אֲרָם” (아람 요베드 아비)를 히브리어 대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두 본문의 차이는 자음 “י” (요드)의 위치가 달라진 데서 비롯했다.

이 밖에도 필사자의 눈 피로, 기억착오, 줄 바꿈 오류 등 여러 사소한 까닭으로 의도하지 않은 이형이 생겨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의도적 이형들은 대부분의 일정한 양상을 내보이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문비평을 할 때는 어떤 필사본의 특이한 독법이 혹시 이러한 실수로 설명될 수 없는지 먼저 의심해 보며, 만약 단순 실수로 기원한 이형이라면 원-본문을 추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반대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체계적인 차이는 다음에 논할 의도적 수정의 범주

41 이 보기는, 크로이처,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79-80을 보라. 더 많은 보기는,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49-50;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34-235을 보라.

로 고려해야 한다.

(2) 의도적 수정

일부 이형들에서는 필사자의 단순한 착오로 돌리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거나 의도가 엿보이는 본문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이는 필사자가 자신이 베끼는 본문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의도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생긴 경우다. 고대 필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는 대본을 매우 세심하게 필사했지만, 불가피한 오류를 바로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등으로 더러 본문에 개입하기도 했다. 의도적 수정의 주된 유형으로는 문맥적 수정과 신학적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²

① 문맥적 수정

i)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쉬운 읽기로 수정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어휘 수정이나 문법 수정이 포함된다. 시편 95편 4절에서 마소라 본문은 “מְחַקְרֵי אֲרֶץ” (메흐크레-아레츠/땅의 깊음(?))으로 쓴다. 여기서 쓰인 명사 “מְחַקֵּר” (메흐카르)는 이 본문에서만 쓰이는 낱말이어서(hapax legomenon), 그 뜻을 문맥에 따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⁴³ 그런데 칠십인역에서는 이 표현이 “טַהַנּוּ טַהַת אֶתְאֲרֶץ אֵת” (타 페라타 테스 게스/땅의 먼 곳)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מַרְחִיקוּ” (메르하케)를 대본으로 생각할

42 이 구분과 아래 드는 보기의 목록은,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199-204을 보라.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비교.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51-61;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40-262; 피셔, 『구약성서 본문』, 216-223.

43 이 낱말은 정경이 아닌 집회서 44장 4절의 히브리어 필사본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뜻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사 “חַקֵּר”의 다른 형태로 새길 수 있다. 참조.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et al.: Springer, ¹⁸2013), 661.

수 있다.⁴⁴ 이렇게 보면, 칠십인역의 번역자는 아마도 마소라 본문의 낮은 낱말을, 자음의 위치를 조정해서 자주 쓰이고 익숙한 표현으로 고쳤다고 여길 수 있겠다. 또는, 앞선 필사자의 본문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조정하기도 한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마소라 본문은 “קָרָא נָא גַם לְחוּשֵׁי” (크라 나 감 르후샤이/너는 후세도 불러라)로 쓴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다. 그런데 문맥에서 압살롬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 그러므로 마소라 본문은 문법이 틀렸다. 여기서 칠십인역은 문맥에 맞게 “καλέσατε δὴ καὶ γε τὸν Χουσι” (칼레사테 데 카이 게 톤 후시/너희는 후세도 불러라)로 옮기는데, 이는 “קָרָאוּ נָא גַם לְחוּשֵׁי” (키르우 나 감 르후샤이)를 대본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만약 마소라 본문이 자음 비슷하게 보이는 “ו”와 “נ” 가운데 앞 자음을 실수로 빠뜨린 것⁴⁵이 아니라면, 아마도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대본은 잘못된 문법을 수정한 전통을 반영할 것이다.

ii) 성경 내 평행 구절이나 유사한 이야기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 본문의 표현을 다른 본문과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도록 수정하는 일이 있다. 복수의 복음서를 가진 신약에서 흔한 현상이지만,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의 반복 규례나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기사 등에서 이런 조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지만, 사무엘하 21장 19절의 마소라 본문에서는 “אֶלְחָנָן בֶּן־יְעָרִי אֲרָגִים בֵּית הַלְחָמִי” (엘하난 벤-아레 오르김 베티 하라흐미/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전한다. 이 불일치에 대해 역대상 20장 5절에서는 엘

44 참조. M. E. Tate, *Psalms 51-100* (WBC 20; Grand Rapids: Zondervan, 1991), 497.

45 이런 견해는, Kim, *Textformen*, 245을 보라.

하난이 골리앗이 아니라 “לְחֹמֵי אָחִי נָלִיִּית׃” (라호미 아히 골리야트/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다고 수정했다.⁴⁶ 또한, 사울의 아들 명단이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는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이다.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전사를 전하는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전한다. 한편,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는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웠다고 전한다. 이 문제의 조화를 위해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에서는 사울의 아들들 명단을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로 조정하였다.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יִשְׁוִי” (이스비/이스위), 사무엘하에서 전하는 “אִישׁ בִּשֵׁט׃” (이쉬 보셰트/이스보셋), 그리고 역대기의 “אֶשְׁבַּעַל” (에쉬 바알/에스바알)은 사실상 같은 이름으로 여길 수 있다.⁴⁷ 어쨌거나 역대기는 사무엘서의 부조화를 해결하려 하였음이 틀림없다.

iii) 필사자나 편집자가 본문을 읽다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해석을 덧붙이는 글을 삽입하기도 했다. 때로는 이를 여백 주석으로만 남겼지만, 후대에 이 주석이 본문으로 흡수되어 버린 용례도 있다. 가령, 사무엘상 13장 1절의 경우, 마소라 본문이 “שָׁנָה שָׁאֵיִל בְּמִלְכּוֹ” (샤울 브몰르코 벤-샤나/사울은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나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 일부 그리스어 필사본들은 그 빈자리를 채운 숫자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기원후 4세기에 필사된

46 우리말 개역개정은 역대기의 이 수정 본문을 사무엘하의 본문에 다시 적용해서 수정했다. “...베들레헬 사람 야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삼하 21:19; 개역개정).

47 “이스위”는 “여호와의 사람”(יְהוָה אִישׁ יהוה; 이쉬 야훼)를 줄인 꼴로 여길 수 있고, “에스바알”은 그 이름에서 신명 요소를 “바알”로 교체하였으며, “이스보셋”은 이 이름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여길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참조. P. Kyle McCarter, *I Samuel* (AB 8; New York: Doubleday, 1980), 254; W. Dietrich, *Samuel. 1Samuel 27-2Samuel 8* (BKAT VIII/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180.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아래 “3.1.2.2. 신학적 또는 교리적 수정” 항목을 보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Cod. B)은 1절 자체가 없는 데 반해서, 중세 필사본들은 “30세”로 밝힌다.⁴⁸ 이것은 후대 필사자들이 문맥상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려고 추정치를 본문에 써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가는 본문을 명료화하거나 완전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② 신학적 또는 교리적 수정

어떤 필사자들은 앞선 필사본의 본문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수용할 수 있는 본문으로 바꾸기도 했다.⁴⁹

i) 가장 대표적인 경향이 반-다신론적 수정(anti-polytheistic alteration)이다.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대로 갈수록 유일신관(monotheism)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가령, 고유명사의 구성 요소이던 “בְּעַל” (바알)을 “수치”를 뜻하는 “בְּשֵׁט” (보셰트/보셋)으로 고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든 보기 가운데 사울의 아들로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던 사람은 역대기에서는 “אֶשְׁבַּעְאֵל” (에쉬바알/에스바알)이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이 이름이 “אִישׁ בְּשֵׁט” (이쉬 보셰트/이스 보셋)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역대기의 고유명사가 더 이전의 전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ii)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지거나 지나치게 직설적이라고 여겨지는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에둘러 고치는 완곡어법(婉曲語法:

48 이 구절의 본문비평은, 김정훈, 『사무엘서. 한계를 가진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서울: 감은사, 2024), 234-235을 보라.

49 이에 해당하는 더 많은 보기는,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59-60;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42-256 등을 보라.

50 참조, J. J. Scullion, “God (OT)”, ABD 2 (1992), 1042-1043.

euphemism)도 있다. 가령, 신명기 25장 11절의 마소라 본문은 “בְּנִשְׂיוֹ הַזֵּה וְהַזֵּה” (브헤흐지카 비므부샤브/만약 그 여자가 그의 성기를 잡으면)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은 이 본문을 “וְהַזֵּה בְּבִשְׂרוֹ” (브헤흐지카 브바샤로/만약 그 여자가 그의 살을 잡으면)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등이다.

2) 본문비평의 일반적인 원칙

구약성경 본문비평은 기본적으로 본문 증거 수집과 비교 및 분석 작업에 바탕을 두지만, 동시에 본문 해석과 직관적 판단이 수반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문을 확정하기 위해 본문비평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을 따른다.⁵¹

(1) 본문 증거의 수집과 비교

본문비평의 목적,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으려면, 먼저 해당 구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본문 증거를 수집한다. 본문 증거 수집에는 마소라 본문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 사마리아 오경, 쿰란 성경 본문의 해당 부분, 칠십인역 및 기타 역본의 번역 차이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주로 비평편집본(BHS, BHQ 등)의 본문비평 장치(apparatus)를 통해 주요 이형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각 증거가 어떤 이형들을 제공하는지 나열하고 직접 비교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올바른 본문 증거 수집을 위한 첫 단계는 본문 이형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평편집본의 본문비

51 본문비평의 절차에 대해서는, Klein, *Textual Criticism*, 62-84; Kyle McCarter, *Textual Criticism*, 62-75; U. Beck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Tübingen: Mohr Siebeck, ⁴2015), 37-40; Utschneider, *Arbeitsbuch*, 53-58;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69-282;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204-227; 피셔, 『구약성서 본문』, 226-240 등을 견주어 보라. 여기서는 김정훈의 글을 바탕으로 본문비평의 과정을 서술한다.

평 장치를 잘 해독해야 한다.⁵² 그리고 역본의 이형은 가능한 한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마소라 본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외적 기준의 평가

본문 증거를 수집하여서 분류하고, 분석했다면, 외적 기준(external criteria)에서 그것들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외적 기준이란 이형을 담고 있는 필사본 자체의 속성으로서, 필사본의 연대, 지리적 분포, 전승 계통 등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연대가 오래되고 독립적인 지역 전승에서 유래한 사본일수록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다. 예컨대 어떤 이형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콤파 성경 본문과 칠십인역에 나타나고, 반대 읽기는 중세 이후의 마소라 사본들에만 있다면 전자의 외적 증거가 더 무게를 가진다.

다만 본문 증거의 다수성이 곧 그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잘 알려진 말대로 “필사본은 가치매김을 하지, 수를 세지 않는다”(Manuscripta ponderantur non numerantur)는 것이다. 때로는 소수 전승이지만 더 오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약성경의 경우 마소라 본문 전승이 중세 이후로 거의 획일화되었기 때문에, 콤파 성경 본문이나 고대 역본 등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본문 증거가 있는 읽기가 단 하나뿐이어도 그것이 더 오래된 본문 형태일 수 있다. 외적 기준의 평가는 사본 계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각 증거의 역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

가령, 창세기 1장 7전하-후반절에서 마소라 본문과 콤파 본문, 사

52 BHS의 비평 각주는,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14), 14*~40*; BHQ는 개별 출간된 책마다 서문에 제공하는데, 자주 쓰이는 비평 각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는,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206-210을 보라.

마리아 오경 등에서는 לְרַקִּיעַ וּבֵין הַמַּיִם אֲשֶׁר מֵעַל לְרַקִּיעַ וַיְהִי־כֵן (그분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를 나누게 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로 본문을 전한다. 하지만 칠십인역에서는 “וַיְהִי־כֵן” (바여히-켄/그리고 그대로 되었다)에 해당하는 번역이 없다. 이 경우 본문을 전하는 외적 기준에서 마소라 본문과 쿨란 본문이 칠십인역보다 더 무게를 가지므로, 마소라 본문을 잠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적 기준의 평가를 통해서 내린 판단이 반드시 본문비평적 우선성이 있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외적 기준으로 잠정적 판단을 해서 선택한 본문은 계속해서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재고될 수 있어야 한다.⁵³

(3) 내적 기준의 평가

외적 기준을 통해 본문을 전하는 필사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본문 형태의 잠정적 가치를 판단했다면, 또는 그 판단이 여의찮다면, 본문의 형성과 전승의 언어와 내용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선후 순위를 판단한다.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내적 기준(internal criteria)의 평가라고 일컫는다.

내적 기준의 평가에 판단 기준으로 삼는 원칙에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첫째, 성경 본문은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전제다. 경전으로 쓰인 성경의 특성상 첨가되는 경우가 삭제되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말이다. 둘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쉽게 고치는 것이 쉬운 본문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다.

53 참조,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220. 피셔(Fischer)는 심지어 외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어지는 내적 기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까지 말한다(참조, 피셔, 『구약성서 본문』, 234).

이런 전제와 유의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내적 기준의 판단에는 아래에서 다룰 두 가지 기준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들도 절대적이지 않다. 구약성경 본문의 일반적인 현상들을 총괄하는 원칙일 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개별 이형이 더 오래된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원칙은 본문비평의 내적 기준에 따른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① “더 어려운 읽기가 더 개연성 있음”(lectio difficilior lectio probabilior)

어떤 본문에서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보여주는 이형들 가운데 간편하고 쉬운 읽기를 제공하는 본문보다 이해하기 더 어렵거나, 훼손되거나 수정되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본문이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 원칙은 내용의 어려움이나 의미상의 충돌이 생긴 이형들을 해결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대목의 첫머리 마소라 본문은 “יְהוָה אֱלֹהֵי יִשְׂרָאֵל”(야훼 엘로헤 이스라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로 동사가 없어서, 목적절을 이끄는 “כִּי”(키)로 시작하는 문장을 연결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칠십인역은 “κύριος ὁ θεός Ἰσραηλ οἶδεν”(퀴리오스 호 테오스 이스라엘 오이덴/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신다)으로 옮겨서 타동사 “יָדַע”(야다/알다)가 더 있는 본문을 전제하며, 목적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본문을 이해하기 수월해졌다. 이 경우, 맹세 관용구의 관점에서 마소라 본문은 구체적인 동사가 생략된 채 쓰이는 ‘더 어려운 읽기’로 더 오래된 본문으로 여길 수 있겠다.⁵⁴

54 참조. 김정훈, 『사무엘서』, 374.

② “더 짧은 읽기가 더 우선함”(lectio brevior lectio potior)

어떤 본문에서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보여주는 이형들 가운데 문법적·내용적으로 충분한 요소가 다 있는 긴 본문보다는 결핍된 짧은 본문이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 해설하고 조정하고 수정하는 첨가로 볼 수 있는 낱말과 문장 성분, 문장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예외로는 중자탈락(haplography)이나 유사문두탈락(homoioarcton), 유사문미탈락(homoioioteleuton), 또는 필사자의 의도에 따른 분명한 다른 이유가 확인되는 본문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장차 다윗의 암논과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사이에서 벌어질 왕위쟁탈전과 그에 이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시발점이 된다.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21절에서 전하는데, 마소라 본문은 다윗이 “וַיַּחַר לוֹ מְאֹד”(바이하르 로 모오드/크게 화를 냈다)고 전한다. 그런데 콥란 본문(2QSam^a)에는 이 문장에 이어 “[כִּי אָהָבָה] בּוֹ כִּי בְכוֹרִי הוּא”([키 아하]보 키 브코[로 후]/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가 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칠십인역 전통에서는 더 완전한 본문이 있다. “καὶ οὐκ ἐλύπησεν τὸ πνεῦμα Ἀμνῶν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ὅτι ἠγάπα αὐτὸν ὅτι πρωτότοκος αὐτοῦ ἦν”(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 암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맏아들이어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본문 증거의 외적 기준으로 볼 때, 이 긴 본문 전통이 적어도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 정보는 다윗이 이복 자녀들 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한 보충 설명이며, 따라서 마소라 본문의 ‘더 짧은 읽기’가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⁵

(4) 본문의 역사 재구성

본문비평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본문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본문비평의 결과 현존하는 본문 증거 가운데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본문비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대의 필사오류나 수정을 거친 본문 형태로 판가름한 이형들의 생성 원인과 본문 형태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구약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과정을 보통 분석 작업과 종합 작업으로 구분하는데,⁵⁶ 본문 증거를 수집하여 분류하여 가장 오래된 본문 형태를 찾아가는 단계가 분석 작업이라면, 본문 증거들을 통해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단계는 종합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이형의 생성 원인과 종합적 본문 역사 재구성을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이 달라지는 까닭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본문 역사 재구성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을 찾아가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은 주석의 대전제일 뿐,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에서 하는 본문 역사 재구성은 여러 이형 가운데 왜 해당 본문 형태가 주석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 관한 논리적 증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55 참조. 김정훈, 『사무엘서』, 712.

56 이에 대해서는,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42-45, 특히 43을 참조하라.

4. 본문비평의 실례: 하박국 2장 6후반절⁵⁷

1) 본문 이형 정보 수집과 비교

이 본문에서 쓸 수 있는 본문 증거는 마소라 본문과 쿵란 하박국 페세르(1QpHab),⁵⁸ 칠십인역과 나할 헤베르 그리스어 소예언서 필사본 (8HevXIIgr) 등이다.⁵⁹ 본문비평을 위해서 개별 본문 증거의 편집본들을 따로 보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BHS와 BHQ⁶⁰의 비평 각주를 사용한다.

먼저, 마소라 본문은 “לֹא-לוֹ עַד-מָתִי וּמִכְבִּיד עָלָיו עֲבָטִיט” (화로구나, 제 것 아닌 것을 늘리는 이여! 언제까지이겠는가? 자기 위에 담보물로 무겁게 하는 이여!)로 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두 낱말 (עָלָיו עֲבָטִיט: 알라브 아브티트/자기 위에 담보물로)에 대한 이형을 보기로 들기로 한다.

BHS에서는 이 두 낱말에 대한 아무런 이형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

57 이 보기에 대한 본문비평적 해설은, 김정훈, “하박국 1:15-2:11의 칠십인역 번역과 해설”, 한국칠십인역번역위원회 지음/김정훈 편집,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 필요성과 의미. 하박국서 본문의 실례』 (서울: 감은사, 2024), 197-199을 보라. 하박국 1-2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46 (2012), 96-122을 보라.

58 하박국 페세르의 본문비평적 특징에 대해서는, Jong-Hoon Kim,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 rezeptionsae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한편, 쿵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덕중, “1QpHab(하박국 주석서)를 통해 본 쿵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20 (2006), 35-58을 보라.

59 쿵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소예언서의 본문 증거 대조 편집본으로는, B. Ego et al.(eds.), *Minor Prophets* (Biblia Qumranica 3B: Leiden/Boston: Brill, 2005), 특히 132-133을 참조할 수 있다.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이 필사본의 특징을 살핀 연구로는, 김정훈, “8HevXIIgr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본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형태”, 『구약논단』 46 (2012), 123-150을 참조하라.

60 Anthony Gelston (ed.), *Biblia Hebraica Quinta editione c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Vol. 13 The Twelve Prophe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는다. 그러므로 BHS만 가지고 본문비평을 하고 주석 작업을 이어간다면, 이 본문은 BHS가 전해 주는 마소라 본문 외에는 아무런 논의도 할 수 없다. 반면에, BHQ에서는 두 낱말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이형 정보를 전해준다. 그러므로 BHQ가 출간된 책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i) 마소라 본문의 “עָלִיוֹ” (알라브/자기 위에)는 “ΕΦ ΑΥΤΟΝ”으로 번역한 hevxIIgr와 불가타와 페쉬타가 지지한다. 한편, 1QpHab에서는 자음본문이 “עָלוֹ”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전하는데, 편집자의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마소라 본문에 대한 불완전서법(*scriptio defectiva*)인 철자법의 차이(*differ-orth*)다. 그러나 칠십인역에서 “τὸν κλοιὸν αὐτοῦ” (톤 클로이온 아우투/자기 사슬을)로 옮긴 것은 히브리어 대본에서 “עָלוֹ” (올/명에)를 전제하는 “עָלוֹ” (올로/그의 명에)를 대본으로 할 수 있다.⁶¹ 그렇다면 1QpHab와 자음 본문은 같아진다. 따라서 1QpHab의 본문은 칠십인역의 본문 형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⁶²

ii) 마소라 본문의 “עֲבָטִיט” (아브티트/담보물)은 먼저 1QpHab에서는 “עֲבָטִיט”로 불완전서법으로 쓰였다. 칠십인역에서는 “στίβαρῶς” (스티바로스/무겁게=아주)로 옮기는데, 이는 편집자의 견해(*lib*)대로 의역으로 보인다. 반면에, hevxIIgr는 “ΠΑΧΟΣ ΠΗΛΟΥ” (파코스 펠루/진창 [으로] 가득함)로 옮기는데, 이 번역은 불가타와 페쉬타가 따른다. 편집자에 따르면, 이 번역은 한 낱말을 둘로 분리(*differ-div*)해서 옮긴 번역이다 (עֲבָטִיט; 아브 티트).

61 두 낱말의 대응은 왕상 12:4(×2), 9, 10, 11(×2), 14(×2), 겔 34:27 등. 참조, E. Hatch/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772a.

62 편집자도 “*differ-orth*”의 판단은 유보하고, 이 가능성을 열어둔다. 참조, Gelston, *BHQ*, 119*.

2) 외적 기준의 평가

위에서 고찰한 결과, 두 낱말에 대해 크게 다음 세 가지 본문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MT	עָלְיוֹ עֲבָטִיט	자기 위에 담보물로
1QpHab	עָלוֹ עֲבָטִט	자기 명예를 담보물로
ḤevXIIgr	עָלוֹ עֵב טִיט	ΕΦ ΑΥΤΟΝ ΠΑΧΟΣ ΠΗΛΟΥ 자기 위에 진창의 가득함으로

i) 첫째 낱말에서 마소라 본문과 ḤevXIIgr의 “עָלְיוֹ”(알라브/자기 위)에는 1QpHab와 칠십인역의 “עָלוֹ”(울로/자기 사슬)와 본문의 차이를 보여준다. 물리적인 형태로 보면 자음 “י”의 유무이다. 그런데 외적 기준으로 볼 때,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는 ḤevXIIgr는 기원전 1세기의 필사본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어 번역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칠십인역을 지지하는 1QpHab는 기원전 1세기의 필사본이기는 하지만, 이 필사본에서 인용하는 본문은 페세르 부분의 영향을 받아 수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문비평적 가치가 높지는 않다. 따라서, 외적 기준에서 두 이형은 쉽사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ii) 둘째 낱말에서 칠십인역은 의역으로 보이므로 일단 외적 기준의 판단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면 마소라 본문(עֲבָטִיט, 아브티트/담보물)과 ḤevXIIgr(ΠΑΧΟΣ ΠΗΛΟΥ=עֵב טִיט, 아브 티트/진창의 가득함)가 남는데, 사실 두 이형의 자음 본문에는 차이가 없고, 띄어쓰기의 차이이다. 비록 ḤevXIIgr가 역본이기는 하지만, 고대 본문 전통이며, 정확히 마소라 본문의 자음 본문과 같은 대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외적 기준으로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3) 내적 기준의 평가

본문의 이형이 외적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우므로, 본문비평 과정의 결정은 본문의 내적 상관관계 바탕을 두는 내적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다루는 두 낱말은 앞 문장의 “לא־לו” (로-로/제 것 아닌 것)와 평행을 이룬다. 그렇게 볼 때 “עָלוּ עֲבֹטָיִט” (알라브 아브티트/자기 위에 담보물)라는 마소라 본문의 표현은, 둘째 낱말이 구약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이지만(hapax legomenon), 그 뜻을 추정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⁶³ 반면에, 1QpHab의 “עָלוּ עֲבֹטָיִט” (올로 아브티트/자기 멩예를, 담보물)는 사실상 명사가 연이어 나와서 구문론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중복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으며, 둘째 낱말을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가능하다. 아마도 이 본문이 칠십인역의 대본 구실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1QpHab를 ‘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낱말에서 마소라 본문과 같은 형태를 반영한 H_{ev}XIIgr는 둘째 낱말에서 마소라 본문과 같지만, 띄어쓰기를 달리한 본문을 번역했다. 결국 H_{ev}XIIgr의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 이해하기 ‘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인 “עֲבֹטָיִט”을 좀 더 익숙한 두 낱말로 띄어 읽어서 “자기 위에 진창의 가득함으로(=진창을 가득 뒤집어쓰고) 무겁게 하다”라는 회화적인 심상으로 표현했다. 이 본문이 1장부터 이어오던 내용으로 유다를 공격하던 바벨론 군대를 비꼬고 있다고 볼 때, 두 본문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본문의 자음도, 길이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 H_{ev}XIIgr는 첫째 낱말에서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므로, 마

63 참조. F. I. Anderson, *Habakkuk* (AYB 25;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1), 236-237. “담보물”이라는 뜻는 이 낱말을 어근이라고 판단한 “עֲבֹטָיִט”(담보로 잡다)의 용례에 근거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소라 본문과 같은 전통의 이형이지만,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읽은 본문으로 여길 수 있다.

4) 본문의 역사 재구성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1QpHab가 전하는 두 낱말을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 자음 본문 전통은 칠십인역의 대본으로 이어져서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한 본문으로 다소 의역되었을 것이다(καὶ βαρύνων τὸν κλοιὸν αὐτοῦ στιβαρῶς, 카이 바뤼논 톤 클로이온 아우 투 스티바로스/자기 사슬을 무겁게 지고 있는 이어). 한편, 마소라 본문으로 이어진 자음 본문 전통은 “עלו עבטט”(올로 아브티트/자기 멩에를 담보물로)에 자음 “י”(요드)가 어느 순간 덧붙여지면서 앞선 문장과 평행관계로 좀 더 쉬워진 상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한 번 밖에 쓰이지 않아서 어려운 “ט(י)עבטט”는 HevXIIgr에 오면서 좀 더 많이 쓰이는 두 낱말로 나뉘어서 쉽고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5. 나오는 말

구약성경 본문비평의 핵심 목적은 전승 과정에서 발생한 본문 이형들(variants)을 분석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는 현존하는 필사본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본문의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여러 본문 증거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된 성경 본문을 확립하는 일이 본문비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구약성경 본문비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현존하는 본문 증거 수집에서 시작해서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장 오래

된 본문과 그 이후 생겨난 이형들을 설명하여 본문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일반적인 본문비평의 원칙들은 경직되게 적용되기보다는 각 이문(異文)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된다.

본문비평 작업은 중요한 신학적·해석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본문 이형들 대부분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님이 본문비평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걸친 성경 전달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충실히 보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앙적으로 성경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해 준다. 동시에 본문비평은 난해한 구절이나 문맥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경 해석의 명확성을 더해 준다. 다시 말해, 본문비평은 본문 읽기/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이를 통해 독자는 본문의 원래 의미에 한층 가까이가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성경 본문이 형성되어 온 역사와 고대 역본들이 반영하는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폭이 넓어지며 깊이가 더해진다. 마지막으로, 본문비평의 학문적 가치와 전망은 매우 밝다. 본문비평은 성경 주석과 번역의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으로서, 올바른 성경 연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고대 사본들의 발견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기법 발전으로 본문비평은 지속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20세기 중엽 사해문서 발견으로 구약 본문 연구에 혁신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발굴이나 기존 필사본들의 재검토를 통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비록 본문비평 작업이 복잡하고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학문임이 틀림없다.

참고문헌

- 김덕중, “1QpHab(하박국 주석서)를 통해 본 콤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20 (2006), 35-58.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 _____, “8HevXIIgr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본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형태”, 『구약논단』 46 (2012), 123-150.
- _____,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_____,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자음 중복과 중차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
- _____, 『사무엘서. 한계를 가진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서울: 감은사, 2024).
-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46 (2012), 96-122.
- 송혜경, 『구약 외경1』(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22).
- 한국칠십인역번역위원회 지음/김정훈 편집,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 필요성과 의미, 하박국서 본문의 실례』 (서울: 감은사, 2024).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김정훈 외 역,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휘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 페이지 H. 켈리 외 지음/강설열 옮김,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 S. 크로이처 등 지음/김정훈 옮김,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Anderson, F. I., *Habakkuk* (AYB 25;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1).
- Beattie, D. R./M. McNamara/M. J. McNamara (eds.), *Aramaic Bible: Targums in Their Historical Contex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Becker, U.,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Tübingen: Mohr Siebeck, 42015).
- Brock, S. P., *The Bible in the Syriac Tradition* (Piscataway: Gorgias Press, 32021).
- Dietrich, W., Samuel. 1Samuel 27-2Samuel 8 (BKAT VIII/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 Ego B. et al.(eds.), *Minor Prophets* (Biblia Qumranica 3B; Leiden/Boston: Brill,

2005).

- Elliger, K., W. Rudolph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7-1977; 51997) =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 Fraenkel, D.,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Septuaginta suppl. Bd. I,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Gelston, Anthony (ed.), *Biblia Hebraica Quinta editione c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Vol. 13 The Twelve Prophe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et al.: Springer, 182013).
- Gordis, R.,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2).
- Hatch, E./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21998).
- Kim, Jong-Hoon,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s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lein, R. W.,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The Septuagint after Qumra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 Kyle McCarter, P., *I Samuel* (AB 8; New York: Doubleday, 1980).
- _____, *Textu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Noth, M., *Könige I, 1-16* (BKAT IX1;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32003)
- Rahlfs, A.,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 Rahlfs, A./R. Hanhart (eds.),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Duo volumina in uno, Editio altera* (Stuttgart: 2006).
- Schenker, A. et al.(eds.), *Biblia Hebraica Quinta editione s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 Scullion, J. J., "God (OT)", *ABD* 2 (1992), 1042-1043.
- Tate, M. E., *Psalms 51-100* (WBC 20;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Tov, E., *Scribal Practices and Approaches Reflected in the Texts Found in the Judean Desert* (STDJ 54; Leiden/Boston: Brill, 2004).
- _____,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eapolis: Fortress Press, 32012).
- _____, (ed.), *The Text- from the Judaeae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aeae Desert Series* (DJD XXXIX; Oxford: Clarendon, 2002).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S,VT 134; Leiden/Boston: Brill, 2010).
- Utzschneider, H./S. A. Nitsche, *Arbeitsbuch Literarwissenschaftliche Bibelauslegung. Eine Methodenlehre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Gütersloher Verlagshaus, 42014).
- von Gall, A.,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aritaner, vols. I-V* (Giessen: Töpelmann, 1914-1918; repr. Berlin 1966).
- Yeïbin, I.,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Mosoretic Studies 5; Atlanta: Scholars Press, 1980).
-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5-).

검색어

본문비평, 본문증거, 본문역사,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쿨란성경본문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field of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emphasizing its significance in reconstructing the earliest attainable form of the biblical text based on extant manuscript evidence. The Old Testament, unlike modern literary texts, has undergone centuries of transmission, during which various textual variants (or “readings”) emerged. These variants, though often minor and not doctrinally significant, can have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and exegesis.

The paper first distinguishes textual criticism from related disciplines such as literary criticism, underscoring that textual criticism focuses specifically on the transmission history and physical form of the text, rather than its compositional stages.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 of textual criticism lie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extual witnesses, which include the Masoretic Text (MT), the Dead Sea Scrolls (Qumran Biblical Texts), the Septuagint (LXX), the Samaritan Pentateuch (SP), and other ancient versions such as the Aramaic Targum, Syriac Peshitta, and Latin Vulgate.

Each of these witnesses contributes uniquely to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text. For instance, the Qumran scrolls have confirmed the remarkable consistency of the Hebrew textual tradition over a millennium,

while also exposing the textual diversity of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Septuagint, though a translation, often preserves Hebrew source texts older than the MT, and must be analyzed carefully for translation-related distortions. The Samaritan Pentateuch, while ideologically motivated in some readings, sometimes reflects ancient Hebrew forms also found in Qumran texts.

The paper also categorizes textual variants into unintentional scribal errors (e.g., haplography, dittography, graphic confusion) and intentional modifications (e.g., theological censorship, grammatical correction, harmonization), providing multiple case studies. These principles help assess the plausibility of each reading and guide scholars in reconstructing the likely oldest.

Ultimately, textual criticism enhances biblical scholarship by providing a reliable base text for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theology. While it acknowledges the fluidity of the text in antiquity, it also affirms the high degree of textual stability within the Hebrew tradition. As manuscript discoveries and critical editions continue to evolve, textual criticism remains an indispensable foundation for sound exegesis and academic engagement with the Old Testament.

key words

textual criticism, textual witnesses, textual history, masoretic text, Septuagint, Qumran biblical texts

투고일 : 2025년 05월 14일

심사일 : 2025년 05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5월 25일

www.kci.go.kr